

[論 文]

# 新羅 古墳出土 工藝品에 보이는 外來要素의 淵源

- 飾履塚 金銅飾履를 중심으로 -

李 松 蘭\*

## 차 례

- |                          |                            |
|--------------------------|----------------------------|
| I. 머릿말                   | 2. 佛敎의 性格의 文樣              |
| II. 新羅의 對外交涉             | 3. 龜甲文                     |
| III. 飾履塚 金銅飾履 文樣의 種類와 技法 | IV. 飾履塚 金銅飾履의 外來의 要素와 北方美術 |
| 1. 瑞獸文                   | V. 맺음말                     |

## I. 머릿말

慶州地域일대에서 출토된 新羅古墳工藝品에는 中國의인 것, 西域의인 것, 北方遊牧民族의 北方美術의인 것 등의 외래요소가 나타나며, 그 流入과 受容過程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sup>1)</sup> 이는 新羅의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존 유물들은 당시의 文獻資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對外交涉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天馬塚, 皇南大塚 등 신라의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된 20여점의 琉璃器나 鷄林路 出土의

\* 한빛文化財團 先任研究員

1) 秦弘燮, 「韓國古代工藝와 對外交涉」, 『韓國 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p. 635~654 ; 秦弘燮, 「韓國 古代工藝品에 나타나는 外來要素」, 『國寶 10』工藝 II, 藝耕産業社, pp. 188~196 ; 金元龍, 「古代 韓國과 西域」, 『美術資料』第34號, 1984, pp. 1~25 ; 權寧弼, 「新羅人의 美意識-北方美術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新羅藝術의 新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6輯, 新羅文化宣揚會, 1985, pp. 233~268 ; 李蘭映,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1992 ; 由水常雄, 「古新羅古墳出土의 로만클라스について」, 『朝鮮學報』第八十輯, 1976, pp. 37~71 등을 들 수 있다.

象嵌金裝短劍, 皇南大塚出土 銀蓋,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飾履塚出土의 副葬用 신발인 金銅飾履 등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 유물들이다. 신라의 이러한 유물들과 비교되는 예를 高句麗나 百濟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일각에서는 신라의 독자적인 통로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묘제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高句麗나 百濟는 출입이 가능한 石室墓였던 반면에 신라는 地下에 堅穴式 土廣을 파고 거기에 木槨을 설치하여 피장자를 안치한 목곽과 부장품을 놓고 川石으로 積石을 쌓고 封土를 덮은 積石木槨墳이라는 묘제이다.<sup>2)</sup> 이는 木部가 부식하여 적석이 침몰됨에 따라 도굴의 위험이 적어 부장품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신라의 유존된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현존유물의 비교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新羅의 外來美術 受容經路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三國內의 對外交涉 및 三國과 동아시아의 관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西域의 제 국가들의 포괄적인 對外交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신라의 외래미술의 수용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飾履塚 金銅飾履에 표현된 다양한 文樣의 圖像과 技法에 대한 고찰로서 外來要素의 源流와 受容過程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문제를 연구하는 데 식리총 금동식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중국, 북방 유목민의 미술, 그리고 이란 등의 다양한 외래미술의 요소가 간취될 뿐 아니라<sup>3)</sup> 이러한 외래미술을 삼국시대의 미술전통에서 훌륭히 수용한 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中國에서는 漢에서 南北朝時代까지 금동식리가 발굴된 예가 아직 없는 반면, 冠飾 出土의 왕릉급 고분에는 대부분 출토되어 삼국시대의 독특한 副葬美術의 산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당시 사람들의 사후세계관을 표현한 神話的 性格의 瑞獸들과 佛教 성격의 蓮花文, 火焰文들이 혼합된 삼국미술의 복합적인 성격과도 연결된다.

## II. 新羅의 對外交涉

新羅는 西曆紀元을 전후하여 慶州를 중심으로 部落集團의 小政治體制에서 발전한 국가이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국가의 형성이 늦었지만, 고분출토품의 예에서도 나타나

2) 金元龍, 『韓國 考古學 概說』, 一志社, 1973, pp. 140~141 ; 韓炳三, 「新羅古墳의 樣式과 編年」, 『古墳美術』, 中央日報社, 1975, pp. 168~173.

3) 秦弘燮, 『韓國古代金屬工藝』, 一志社, 1980, p. 37 ; 奈良國立博物館, 『シルクロード・佛教美術傳來の道』, 1988, p. 239.

듯이, 일단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는 外國文物의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文獻으로 확인되는 對中國交涉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6세기 이후, 智證王(500~513) 때 2차례의 北魏와의 교섭이 처음으로 보이는 기록이다.<sup>4)</sup> 그러나 5세기 왕릉급 고분 부장품의 외래요소들로 볼 때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중국 너머의 西域 및 北方文化圈과도 교섭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가 일찍부터 中國 및 中國 이외의 文物을 수용한 배경으로는 당시 선진문물을 한반도로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던 高句麗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37年(儒理王14年) 고구려에게 쫓겨온 樂浪人 오천명을 6부에 분거시키면서부터이다.<sup>5)</sup> 이 사건으로 신라는 보다 선진적인 文物을 직접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부터 삼국의 관계는 相好와 抗爭이 거듭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5~6세기는 신라의 성장과 통일이 조성되는 시기로서 삼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대체로 이 시기를 조명하는 역사학계의 입장을 보면, 6세기 전반에 신라가 高句麗 殘存勢力의 장악으로 고구려의 압력을 극복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정세변화가 있기는 해도 고구려에게 의존하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慶州 壺杆塚에서 발견된 廣開土王을 기념하기 위한 乙卯年銘(長壽王3年, 415年)壺杆도 고구려 우위의 양국 우호관계를 극단적으로 나타낸 유물일 것이다.<sup>7)</sup>

고구려 우위의 관계 속에서 신라는 능동적인 대처로 점차 자신의 세력을 키워감과 동시에 고구려의 국제사회의 위치를 발판삼아 국제사회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세기 후반경에 新羅使臣 衛頭가 前秦에 갔던 것도 고구려가 372年(小獸林王 2年)에 국가 차원에서 前秦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것을 감안하면 고구려를 통하였을 것이다.<sup>8)</sup> 그리고 고구려와 北

4) 『魏書』卷八 帝記八 景明三年(502年), 永平三年(508年)

5) 『三國史記』卷1 新羅本記1 儒理王14年.

6)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關係의 推移」, 『新羅의 對外關係史研究』, 新羅文化宣揚會, 1994, p. 39 ;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28, 延世大 東方學研究所, 1981, p. 60 ; 金貞培,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 -順興地域의 考古學자료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61·62, 1988, p. 9.

7) 金載元, 『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 1948, p.12. 이 보고서에서는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진 나물왕자 복호에게 고구려가 기념품으로 준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밖에 실성왕이 고구려에게 받았다는 의견과 광개토왕의 葬事 1년 뒤의 제사 기념으로 제작한 호우를 신라사신이 받아 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鈴木治, 「新羅 壺杆塚とその紀年について」, 『天理大學學報』29, 1959, p. 22. ; 盧泰敦, 「廣開土王 壺杆銘文」,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 135.

8) 『資治通鑑』東晉 武帝 太元 2年條 ; 金載元·李丙燾, 『韓國史』, 乙酉文化社, 1965, p. 401.

魏와의 밀접한 관계로 볼 때, 신라가 7세기 초반에 고구려를 통하여 北魏에 入朝한 것으로 추정된다.

5~6세기의 고구려는 北中國의 세력이나 蒙古高原의 遊牧民 국가와의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보다 항속성을 띤 상호교섭을 전개하였다.<sup>9)</sup> 고구려는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北魏에는 70여회의 사신을 보냈다. 5세기 중반 이후에는 거의 매년 고구려의 사신이 파견되었고 북위의 사신도 종종 평양을 방문하였다.<sup>10)</sup> 北魏(386~534)는 5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쿠차(龜茲, Khucha), 카슈가르(疏勒, Kashgar) 등 西域의 諸國家를 정복하고 흔히 비단길로 알려진 캐러반 루트를 장악하여 東西貿易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였다.<sup>11)</sup> 고구려는 中華 天子國의 우위성을 고집하는 북위에게 명목상의 상하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무력충돌 위험을 줄여 동북아 방면에서 패권 구축을 보다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빈번한 朝貢使臣의 파견으로 북위의 文物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국제상황이 신라가 다양한 외래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추정된다. 즉, 신라는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소유한 고구려를 매개한 직접, 간접의 북위와의 교섭으로 국제사회에 입문하였던 것이다.

### Ⅲ. 飾履塚 金銅飾履 文樣의 種類와 技法

飾履란 文樣이 裝飾된 金銅製 신발을 말하며, 이제까지 高句麗, 百濟, 新羅, 加倭의 경우를 합쳐서 32점이 발굴되었다. 이들 중에 가장 다채롭고 호화스러운 문양으로 고분의 이름조차 飾履塚인 것이 식리총의 금동식리이다. 식리총은 慶州 路東洞에 위치한다.

金銅飾履는 馬具 등과 함께 木棺 안의 서쪽에서 發掘되었다.<sup>12)</sup> 크기는 길이 32.7cm, 최

9) 盧泰敦, 「5~6世紀 동아시아의 國際政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誌』44, 1984, p. 19.

10) 宋台鎬, 「古代 韓中 文物 交流에 대한 研究 -三國時代의 朝貢外交를 중심으로」, 『論文集』1, 安東教育大學, 1968, pp.17~19 ; 申濬植, 「三國의 對中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朝閣, 1984, pp. 303~309 ; 金理那, 「高句麗 彫刻의 對中交涉」, 『韓國美術의 對外交渉 I ~高句麗』, 第4回 全國美術史學大會 發表要旨, 1993, p. 36.

11) 曠 觀 軒, 宋基中 譯, 『遊牧民民族帝國史』, 民音社, 1984, pp. 28~32.

12)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第1冊, 1932, p. 202. 식리총은 1924년에 발굴되었고 보고서는 8년 뒤인 1932년에 發刊되었다.

대 넓이 10.7cm, 발바닥폭 8.5cm, 높이 9.7 cm이다. 전체 구조를 보면 얇게 鍍金된 3장의 동판이 연결되었다. 신바닥에 1장의 동판이, 신등에 좌우 각각 1장씩 측판으로 세워져 이루어졌다(圖 1).

신 바닥판의 문양을 보면, 테두리문양에는 두 줄의 連珠文과 火焰文 그리고 9개의 蓮花文이 일정한 간격을 맞추어 배열된 繩文이 쓰이고 그 내부의 主文樣으로는 두 줄의 연주문으로 구획한 龜甲文을 중앙에는 완전한 모습의 9개, 그리고 양 옆에는 반 귀갑문을 각각 8개 배치하였다. 중앙의 귀갑문에는 하나의 연화문이 배치된 이외에 龜面文과 雙鳥文이 번갈아 배열되어 있고 양 옆의 반 귀갑문에는 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새의 몸을 한 人面鳥身, 새, 神氣를 내뿜고 있는 麒麟, 새, 새, 날개가 달린 飛魚가 대칭적으로 배열되었다(삽도 1, 圖 2).

신등판의 문양은 신바닥판과 동일하며 龜甲文 내부의 내용만 다르다. 귀갑문 내부에는 중앙에 두 줄의 연주문으로 귀갑문을 9개 배치하고, 바닥에 가까운 긴 면에는 10개, 발등의 짧은 면에는 8개를 배치하였다. 중앙의 귀갑문에는 발 윗부분에서부터 동물의 머리를 하고 새의 몸을 지닌 獸頭鳥身, 玄武, 새, 麒麟, 현무, 새, 서수, 수두조신을 순서로 배열하였다. 안쪽의 귀갑문에는 귀신상을 제외하고 모두 飛魚가 계속하여 裝飾되었고 바깥쪽에는 새가 바깥쪽을 향하여 연달아 표현되었다. 그리고 신뒤꿈치 부분에는 신을 신으면 마주 보게 배치되게끔 네 다리로 걷는 듯한 자세의 龍과 호랑이가 하나씩 배치되었다(삽도 2, 圖 3).

이렇듯 문양이 호화롭게 장식된 금동판을 연결시켜 만든 식리는 日常生活用이 아니라 葬送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高句麗 通溝 12號墓의 벽화에는 바닥에 못이 스파이크처럼 돌출된 신을 신은 무사가 있어(圖 4), 전투시에 金銅製 飾履를 신었을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헌으로 금동식리의 용도가 알려진 바는 없다.

현재까지 조사된 32 例의 金銅飾履는 대체적으로 金銅板을 연결하여 만드는 형식이다(表 1). 文樣은 蓮花文, 여러 겹의 花文이 많고 技法은 대체적으로 透刻技法이다. 그리고 얇은 판을 오려 만든 小步瑤를 매달아 장식적인 효과를 증대한 예가 많다. 식리총의 식리의 예와 같이 打出技法도 있으나 百濟 羅州 新村里 9號墳에서 보이듯이 點을 돌출하는 초보적 단계도 보인다.

이렇게 삼국시대의 다른 식리들과 비교해 보면 新羅 飾履塚의 금동식리는 형식면에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으나 문양을 새기는 鑄出技法은 새로운 것이다. 주출기법은 鑄造과 打出을 결합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이는 鑄造技法으로 틀을 만들고 이 위에 얇은 금속판을 놓고 망치나 끌같은 도구로 打出하여 문양을 만드는 기법이다. 중국에서도 주출기법의 예는

드물며, 본래 近東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다음 中國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우리나라에서도 식리총의 금동식리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금은 모두 탈락되어 자취를 찾을 수 없으나 龜甲文의 육각을 이루는 모서리마다 象嵌을 한 흔적이 발견된다. 신라에서는 귀걸이,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에 突起를 만들고 그 내부에 푸른 옥이나 기타 보석을 끼어넣는 象嵌이 성행하였다. 금동식리에 보이는 상감 역시, 이러한 전통에서 이해되는 기법으로 생각된다.

飾履塚 金銅飾履에 장식된 문양들의 성격을 크게 개관하여 보면 편의상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무덤을 지키는 守護神 및 方位神의 의미인 鬼面文, 四神獸와 神話의 성격의 人面鳥神, 獸頭鳥神, 飛魚, 麒麟의 같은 서수들, 둘째로 火焰文, 蓮花文의 佛教의 意匠과 셋째로 내부에 연화문과 각종 서수들이 장식된 두 줄의 연주문로 구획된 귀갑문이다.

## 1. 瑞獸文

### 1) 鬼面文

각종 瑞獸들 중 무덤을 지키는 守護神이나 方位神의 상징인 鬼神像은 도깨비 얼굴인 鬼面에서 유래하였고, 재앙과 질병 등을 초자연적인 귀신의 힘을 빌어 피하고자 하는 辟邪 救福의 소망에서 비롯된 想像의 象徴的인 圖案이다. 그 기원은 殷代의 도철문에서 구할 수 있으며, 漢代에 인도로부터 유입된 kirtimukha, 즉 명성, 장엄의 얼굴이란 뜻의 사자 얼굴과 흡사한 도안과 혼성되면서 소의 뿔, 맹수의 치아, 사자의 갈기를 조합한 鬼面文이 이루어졌다.<sup>14)</sup>

고구려에서도 鬼面은 通溝의 瓦當에서부터 쓰여 그 표현에 대한 인식이 빠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sup>15)</sup> 安岳 3號墳(357년), 通溝 西崗 第17號墳, 天王地神塚 등을 비롯한 고분벽화에서는 눈, 코, 입을 강조하는 측면상이나 정면상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수도였던 國內城, 平壤 靑巖里, 土城里 등지의 宮城, 寺院 등의 건축물에 쓰인 와당에서는 와당 전체를 귀면으로 채워 눈, 코, 입을 강조한 경우와 마치 개구리를 연상시키듯이 사지를 펼친 漢代의 圓瓦當과 전신의 귀면이 보인다.

13) Umberto Scerrto, "Metal Work", *Encyclopedia of World Art*,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p. 727.

14) 國立公州博物館, 『鬼甲文과 龜面文』, 1990, p. 38 ; 長廣敏雄, 「鬼神圖の系譜」, 『六朝時代美術の研究』, 美術出版社, 1969, pp. 105~141.

15) 秦弘燮, 「鬼面文」,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38.

식리총 금동식리의 귀면은 사지까지 표현한 정교한 모습으로 2종류가 표현되었다. 신바닥 판에는 도깨비의 뿔, 매섭게 치켜든 눈, 으르렁 대는 입과 그 내부의 날카로운 치아로 성난 얼굴을 표현하고, 짧은 바지만을 입고 양 팔을 위로 치켜들어서 힘주어 일어서려는 力士의 자세를 한 귀면상이 묘사되었다(圖 5). 신등판의 귀면상은 바닥의 것보다는 치졸한 숨씨이며 원숭이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한 손으로 벽을 잡고 한 발을 구부리면서 일어서는 자세이다.

이처럼 전신이 표현된 귀면의 예로서 비교되는 유물로는 7세기경으로 추정되는 夫餘 窺巖 面 外里寺址에서 출토된 鬼神文樣博이 있지만, 이는 식리보다 후대이다. 시대가 앞서거나 동시대의 것으로, 전형적인 귀면의 얼굴에 하늘 또는 땅을 받치는 역사의 자세를 한 예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전신의 힘을 다하여 두 팔로 무엇인가를 떠받치면서 일어서려는 자세는 三室塚(圖 6), 通溝 四神塚, 長川 1號墳 등 고구려 5세기 고분벽화의 천장 네 귀퉁이의 역사상들과 유사하여 그 연관관계가 엿보인다.<sup>16)</sup> 특히 고구려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출토지 미상의 環頭大刀에 장식된 鬼神像(圖 7)과 식리총 식리의 귀면과는 얼굴이나 자세, 복식면에서 아주 유사하다.

비록 중국에서도 漢代 이래로 柱枘 개념의 역사상이 묘의 벽화의 귀퉁이 부분에 표현된 전통이 있으나 漢代와 北魏 初期로 편년되는 沂南<sup>17)</sup>의 예와 같이 중국식의 복식을 한 것이 많아 식리총 식리의 것과는 계보를 달리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식리의 귀면문은 고구려적인 역사의 자세를 한 새로운 귀면문 도상의 초기 예로 볼 수 있다.

## 2) 四神文

신라에서는 벽화를 그릴 수 없는 묘제 구조로 인해 사신벽화의 예가 없으며, 이 금동식리의 사신문이 거의 유일한 예인데, 그 계보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백제의 벽화고분으로 公州 宋山里 第6號墳과 扶餘 陵山里 東下塚 2기에 사신도가 있지만<sup>18)</sup> 이들 역시 고구려의 계보로 추정된다.

식리총 금동식리에서는 한정된 좁은 공간때문에 고구려 벽화처럼 활달하고 힘있는 필치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인 사신도라 할 수 있는 강서대묘·중묘와 비슷한 표현을 보이고 있다(圖 8). 북쪽을 상징하는 玄武는 신 등판의 귀갑문 내부에, 남쪽을 상징하는 朱雀으로

16) 安輝濬, 「중국 집안지역의 고구려 고분벽화」, 『輯安 고구려 고분벽화』, 朝鮮日報社, 1993, p. 29.

17) 曾昭楨, 「沂南畫像石墓年代的商榷」, 『沂南古畫像墓發掘報告』, 文化部文物管理出版部, 1956, p. 67.

18) 李成美, 「北韓의 美術史研究現況 -壁畫古墳」, 『北韓의 韓國學 研究成果 分析』 -歷史·藝術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 297.

추정되는 새는 신 바닥판의 귀갑문 내부에 쌍으로 배치되었고, 동쪽을 상징하는 白虎과 서쪽을 상징하는 靑龍은 신 뒤꿈치 부분에 마주 보게 장식되었다.

식리총 식리의 현무(圖 9)는 뱀과 거북이 서로 몸을 칭칭 감고 얼굴을 마주한 형상인데, 이는 거북의 몸뚱이를 미끄러질듯이 가볍게 감은 뱀과 머리를 마주한 거북으로 구성된 강서대묘의 현무와 같은 자세이다. 청룡과 백호로 추정되는 동물은 양식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네 다리로 걷는 자세이다. 이는 몸과 사지를 크게 뻗어 蒼空을 힘차게 나는 강서대묘의 것과 비교된다. 강서대묘의 청룡과 백호는 동일한 자세이지만 각각 용과 호랑이라는 동물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금동식리의 것은 강서대묘의 것에 비해 세장한 특징을 가진다. 동물을 가늘게 묘사하는 것은 식리총에서 출토된 透彫金銅裝馬具, 杏葉, 環頭大刀의 용에서도 나타난다.

주작으로 짐작되는 새는 한 발을 들고 머리를 서로 안으로 돌려 內向式으로 몸이 연결된 對向雙鳥文이다(圖 10). 이 대향쌍조문은 대칭으로 표현된 점에서 스키타이 동물양식과 연관될 여지도 있으나, 주작을 흔히 雌雄으로 구분하여 표현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계보로 보아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圖 9).<sup>19)</sup> 같은 식리총 출토의 杏葉(圖 11)에서도 대칭으로 배치된 한 쌍의 새가 장식되었다. 비록 江西大墓·中墓의 주작과 봉황, 그리고 杏葉의 對向雙鳥文이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 반면 금동식리의 것은 서로 몸이 연결된 차이점이 있지만 쌍으로 표현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 3) 長生不死의 瑞獸

다음으로 長生不死의 의미인 人面鳥神, 獸頭鳥身, 飛魚, 麒麟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들 서수들은 중국 楚나라 문화권에서 시작하여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정리되는 道教 性格의 신화, 설화적 동물들을 연상케 한다.<sup>20)</sup>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仙藥, 長生不死의 存在, 樂園 등 不

19) 주작은 봉황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서중묘, 호남리사신총 등에서는 玄門에 의하여 벽이 둘로 갈라진 좌우에 표현되었고 강서대묘에서는 인동초를 사이에 두고 한 쌍이 표현되었다. 李殷昌, 「韓國 古代壁畫의 思想史의인 研究 -三國時代 古墳壁畫의 思想의인 考察을 中心으로」, 『省谷論叢』 第16輯, 1985, pp. 459~460.

20) 여기에서 道教 性格이라 함은 漢·魏時代에 이르러 宗教 體系를 정제하기 이전의 철리, 신화, 무술 등 도교에 정합된 제 요소들을 가리킨다. 특히 楚나라에서 형성되어 한·위시대에 유전된 대표적인 설화 중의 하나인 서왕모설화와 연관된 장생불사를 상징하는 서수들과 관련이 깊다. 葛兆光, 沈揆昊譯, 『道教와 中國文化』, 東文選, 1993, pp. 29~34.

死觀念의 表象들을 다룬 『山海經』이나<sup>21)</sup> 『抱朴子』에 보이는 신들과 연결된다.<sup>22)</sup> 이러한 서수들이 중국에서 고분미술에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戰國時代이며<sup>23)</sup> 본격적으로 표현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長沙 馬王堆古墳의 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圖 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樂浪 王光墓의 永平12年(69년)在銘 神仙龍虎畫像漆盤(圖 13)에 西王母와 東王公 그리고 도교적 성격의 서수들이 표현된 예가 있고<sup>24)</sup>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초기부터 道教 複合的인 요소가 등장하고 있어<sup>25)</sup> 빠른 시기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新羅의 金銅飾履에 묘사된 인면조신, 수두조신, 기린, 비어의 도상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연원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사람의 얼굴과 새의 몸을 지닌 人面鳥神과 새의 몸에 짐승의 머리를 가진 獸頭鳥神을 보겠다. 인면조신은 신바닥판의 반귀갑문 내부에 묘사되었고 큰 귀, 은행형태의 눈, 타원형의 측면 얼굴에 끝부분이 뿔처럼 올라간 특이한 관을 쓰고 있다. 한 날개를 펴고 한 날개는 접어서 걷는 자세이고 神性을 드높이려는 의도로 파악되는 끈과 같은 세 가닥의 물체가 나부끼고 있는 특징이 있다(圖 14). 수두조신은 신등판의 육각문 내부에 표현되었으며 귀가 뿔처럼 짐승의 머리에 긴 꼬리를 하고 양 날개를 펴서 서 있는 자세이다.

中國 漢代에는 獸頭鳥神과 人面鳥身이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남북조시대에 이르면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예가 많다. 인동당초문을 가운데 두고 긴 뿔 모양의 冠帽을 쓴 인두조신과 위를 향해 고개를 쳐든 수두조신이 쌍으로 표현된 河南省 등현 출토의 화상석(圖 15)이나<sup>26)</sup> 連珠文으로 네모난 구획을 하고 그 내부에 力士像, 사슴, 기린을 각각 배치한 후 맨 가장자리에 인면조신과 수두조신을 마주보게 한 北魏의 大同出土 石硯(圖 16)이

21) 『山海經』은 成立年代에 있어서 西周 初期(기원전 12세기)에서부터 魏, 晉에 이르기까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見解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늦어도 南北朝시대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地理書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民俗, 宗教, 口傳神話 등 原始的 世界觀을 반영하는 神話書이다. 鄭在書, 「山海經 神話와 神仙思想」, 『道教와 韓國思想』, 亞細亞文化史, 1987, pp. 239~249 ; 鄭在書, 「解題」, 『山海經』, 民音社, 1985, pp. 19~25 ; 鄭在書, 『不死의 신화와 사상』, 民音社, 1994, pp. 24~26.

22) 葛洪(283~343)이 지은 것으로 戰國이래 後漢末의 神仙思想을 집대성한 것이다. 窪德忠, 『道教史』, 山川出版社, 1977, p. 144.

23) 町田章, 『古代東아시아의裝飾墓』, 同朋舍, 1986, pp. 146~147.

24) 東京帝國大學文學部編, 『樂浪』, 刀江書院, 1930, pp. 42~43.

25) 鄭璟喜, 「三國時代 社會와 仙道」,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 一志社, 1990, pp. 250~251.

26) Susan Bush, "Floral Motifs and Vine Scrolls in Chinese Art of the Late Fifth to Early Sixth Centuries A.D.", *Artibus Asiae* Vol. 38, p. 19 ; Annette L. Juliano, "TENG-HSIEN : AN IMPORTANT SIX DYNASTIES TOMB", *Artibus Asiae Supplementum* 37, 1980, p. 32, Fig. 28.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세기 이후의 고분들로 편년되는 安岳1號墳, 舞踊塚, 三室塚, 天天地神塚, 江西大墓, 德興里古墳에서 이들 瑞獸들이 보이고, 쌍으로 나타난 것은 안악1호분, 삼실총, 덕흥리고분이다.

이들 중에서 삼실총(圖 17)과 덕흥리고분(圖 18)의 표현형태가 주목된다. 특히 408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幽州刺史 鎮<sup>27)</sup>의 묘인 덕흥리고분에는 각 서수들의 옆에 墨書銘이 있어 이들 서수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인면조신의 옆에는 각각 千秋, 萬歲, 수두조신 옆에는 吉利, 富貴라고 쓰여져 있다. 이는 『抱朴子』 「大俗篇」에 나오는 長壽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으로<sup>28)</sup> 우리나라에서 5세기에 이르면 도교적 속성의 신들의 개념이 분묘미술에 체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인면조신과 수두조신은 오래 장수하면서 복을 받기를 염원하는 인간의 소박한 심정에서 연유된 길상동물임을 알 수 있다.

飛魚는 신바닥판과 신등에 모두 표현되었으며 물고기의 몸에 날개가 달린 비어의 모습이다(圖 19). 식리총 금동식리의 비어 이외에 안악 1호분의 날개와 지느러미 모양의 짧은 발이 달린 有翼有足魚와 덕흥리고분의 飛魚(圖 20), 百濟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왕비의 頭枕에 그려진 동물머리의 怪魚, 이렇게 세 개의 예가 있다. 식리총 식리의 비어와 도상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은 덕흥리고분의 비어이다. 이러한 비어의 의미로 『산해경』 南山徑의 먹으면 중병이 없어진다는 陸이 참고된다.<sup>29)</sup>

麒麟은 牛尾一角이라는 도상적 특징이 있다.<sup>30)</sup> 식리총 금동식리의 기린은 비록 뿔은 없으나 신기를 내뿜고 있는 점과(圖 21) 後漢시대의 화상석들에서 西方仙界를 상징하는 不死世界の 瑞獸群에 포함되며 西王母의 협시로 자주 등장하는 점에서 기린일 가능성이 크다. 후한시대의 神仙界圖를 나타낸 화상석 중에서 출토지미상의 한 석판은 이 점을 잘 나타낸다. 이 화상석에는 雲臺에 西王母가 앉고 그 양쪽에는 伏羲와 女媧가, 북회와 여와의 옆에는 날개를 접은 새가, 그 아래단에는 절구를 찧고 있는 옥토끼와 기린 및 각종 서수가 묘사되었다(圖 22).

결국 人面鳥身, 獸頭鳥身, 飛魚, 麒麟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초월하고자 소망하는 의식에서

27) 朱榮憲, 「興里壁畫古墳の主人公について」, 『德興里高句麗古墳壁畫』, 講談社, 1986, pp. 94~103.

28) 『抱朴子』, 對俗篇, “蟾蜍 壽三千歲, 麒麟 壽二千歲, 騰黃之馬, 吉光之壽, 皆壽三千歲, 千歲之鳥 萬歲之禽 皆人面而鳥身.”

29) 이외에 날개달린 물고기로는 西山徑의 大豊을 물고오는 文鯨魚, 東山徑의 大阜을 물고오는 鯨魚, 西山徑의 洪水를 물고오는 羸魚가 있다.

30) 李在重, 『中國과 韓國 古代墳墓美術品에 보이는 有翼獸』,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p. 8.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수들의 연원에 대하여서는 中國의 동북방에서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推論이 있다.<sup>31)</sup> 궁극적인 원류는 論外로 하더라도 巫俗의 인 전통이 강하던 삼국시대 미술에서 이를 수용하고 즐겨 표현할 만한 사상적 기반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수들의 도상의 계보와 연결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 2. 佛敎的 性格의 文樣

식리총 금동식리에 표현된 불교적 성격의 장식문양으로 火焰文과 蓮花文이 있다. 마치 연속된 C자형의 끝을 변형한 듯한 화염은 角抵塚, 舞踊塚, 三室塚, 德興里 등 5세기 고분벽화의 천정에 표현된 三角火焰文의 계보이다(圖 23). 高句麗 古墳壁畫 三角文의 근원은 北魏 金銅佛의 光背, 雲岡石窟, 고분출토 棺의 裝飾文樣으로 쓰인 三角火焰文(圖 24)에 있다.<sup>32)</sup>

연화문은 그 내부에 繩文으로 작은 원이 묘사되었으며, 모두 8개의 잎으로 둥근 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쌍영총, 안악1호분 등 현실 천정석에 그려진 연화와 연관이 있다. 묘실 천장부에 연화를 장식하는 것은 5세기 北魏의 石窟寺院에서 光明의 상징으로 천장부에 연화를 묘사하고, 가운데 화심을 뚫어 투광창의 역할을 하도록 도안한데서 연유한다.<sup>33)</sup>

불교에서 연화가 淨土세계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식리총 금동식리의 연화장식은 피장자가 佛敎 淨土에 到來하기를 바라는 내세관의 표현으로 추정된다. 또한 식리총에서 함께 출토된 銅製碗에는 生死輪廻를 탈피하고 極樂에 往生하기를 바라는 蓮花化生이 있다. 그릇의 겉표면에 얇은 線刻으로 연봉오리에서 시작하여 金剛寶珠가 탄생하는 연화화생이 묘사되어 있다(圖 25). 식리총 동제완의 육각으로 금강석을 나타내고 아래에는 복련으로 연화대가 묘사된 금강보주는 강서대묘(圖 26), 우현리 대묘의 것과 같으며, 다시 그 연원은 북위의 운강석굴(圖 27) 및 돈황석굴에서 쓰인 형태로 간다라까지 올라간다.<sup>34)</sup>

31) 鄭在書, 『不死의 신앙과 사상』, pp. 65~66. 中國의 王瑤, 日本의 미따리이 마사루(御手洗勝), 이즈쓰 도시히로(井筒俊彦), 英國의 J. Needham, 美國의 Edward H. Schafer, John S. Major 등 다수의 학자가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32) 金元龍, 『韓國의 古墳壁畫』, 『韓國美術全集』 4 壁畫, 同和出版公社, 1974, p. 6 ;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和出版公社, 1976, p. 314.

33) 全虎兌,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的 來世觀」, 『韓國史論』 21, p. 5.

34) 八木春生,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 摩尼寶珠의 表現의 諸相再論」, 『佛敎美術』 203, 1992. 6, pp. 94~95.

이처럼 식리총의 금동식리에는 長生不死의 現世 救福의인 소망을 나타낸 서수들과 이에 비교해서 발전적 수준의 내세관이라 할 수 있는 佛教 淨土를 구하는 佛教 象徵인 연화문과 화염문이 복합되었다. 이처럼 다른 사상적 체계에 기반한 미술요소들의 혼합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기본자료로 한 연구결과가 참조된다.<sup>35)</sup> 즉, 5세기 고구려에서는 道敎的 來世觀과 佛敎的 來世觀이 공존하며 상호간 영향을 주었는데, 식리총의 금동식리의 장생불사의 상징체인 각종 서수들과 불교 의장인 연화문, 화염문의 종합적인 의미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상적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라의 기타 다른 고분 유물들에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불교적 요소가 수용된 예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고구려와 같이 도교와 불교의 체계적인 사상적 혼합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 3. 龜甲文

連珠文으로 된 龜甲文은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高句麗, 百濟, 新羅, 伽耶에서 장식의 장으로 많이 쓰였다.<sup>36)</sup> 귀갑문의 내부에는 동물이나 연화와 같이 다른 문양이 포함된 특징이 있는데, 특히 식리총 금동식리의 경우에는 四神獸, 長壽不死의 성격을 지닌 서수 및 연화문 등 다양한 내용의 문양이 장식되었다. 내부에 표현된 문양들은 중국이나 삼국시대의 고분미술에 그 유래가 있다. 그렇지만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난 연주문으로 이루어진 귀갑문은 중국에서도 남북조시대까지는 찾아볼 수 없어, 근원을 중국 너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近東에서는 연주문으로 육각, 팔각, 원 등의 기하학적 테두리를 하여 그 내부에 팔메트나 사엽문 등의 식물문이나 새, 센므르브 등의 동물문을 표현한 문양이 고안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양은 사산朝이란(226~651년)<sup>37)</sup>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였다. 이로 보아 금동식리의 귀갑문은 근동에서 출발하여 東漸된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동 유래의 귀갑문의 가장 이른 시기의 예로 지금은 사라진 古代都市國家인 팔미라의 벨遺蹟址에서 찾을 수 있다. 팔미라는 2~3세기 무렵에 東西中繼貿易으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리아지역의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사막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

35) 金元龍, 「高句麗 古墳壁畫에 있어서의 佛敎的 要素」,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論文集』, 1987 : 金理那, 앞의 발표요지 : 全虎兪, 앞의 논문.

36) 公州國立博物館, 『鬼面文과 龜甲文』, 1990, p. 37.

37) 또는 사산朝페르시아라는 명칭을 쓸 수 있으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朝, 사산朝 등 王朝를 지칭하고 이란은 민족을 나타내어 이 글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사산朝이란을 사용하였다.

도로 문화가 발전된 지역이었다.<sup>38)</sup> 벨신전은 로마의 주피터를 바빌로니아식으로 변형한 벨, 아그리볼(달의 신), 야르히볼(태양의 신)의 세 신을 모신 神殿이다. 벨신전의 왼쪽 龕室의 天井 즉 '曆天井(Zodiac ceiling)'에 龜甲文이 장식되었다(圖 28).<sup>39)</sup> 行星을 상징하는 7神이 귀갑문 내에 표현되었고 그 옆에는 내부에 花文이 하나씩 장식된 마름모, 원 등의 기하학 문양이 묘사되었다.

벨신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양은 내부에 花文이 포함된 기하학 문양인데, 귀갑문 역시 인물이 표현된 曆天井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花文이 표현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의 귀갑문은 '세형제의 무덤' 등의 천정 등 다른 유적지에도 확인된다. 팔미라에서는 귀갑문이 대개 천정중심부에 장식된 예가 많아 이 문양이 하늘과 통하는 상징도안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팔미라 양식의 귀갑문이 사산朝이란의 建築 및 工藝品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주목된다. 中繼貿易의 지분을 이유로 로마와 전쟁에 돌입한 팔미라는 결국 로마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이때 사산朝이란의 샤푸르1세는 近東 최고의 장인들인 팔미라인들을 새로 시작된 사산朝의 大工事 및 工藝産業에 투입하였다.<sup>40)</sup>

사산朝이란에서는 팔미라에서처럼 그 내부에 花文이 수용된 기하학문양도 많이 쓰였으나 동물문이 장식된 연주문으로 테두리된 기하학문양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國教인 조로아스터教의 영향이 크며 각각의 요소가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sup>41)</sup> 즉, 連珠文을 구성하는 眞珠는 靈魂, 善, 빛, 光明, 天空, 王室의 榮光을, 센무르브(Senmurw)는 생명을<sup>42)</sup>, 天

38) I. Browing, *Palmyra*, Noyes Press, 1979, p. 13~19. 팔미라는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아나톨리아, 남쪽으로 아라비아의 중심점에 있어 동서남북의 도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중계점이다.

39) I. Browing, 앞 책, pp. 45~47.

40) P. O. Harper, "Sasanian Silver",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 3(2), Cambridge University, 1985, pp. 1127~28. 팔미라의 제노비아여왕은 로마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샤푸르1세에게 援軍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東西交易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직물, 금은기 등의 공예산업을 부흥시키려는 계획으로 시리아의 장인들을 이란의 국가주도의 匠人制度에 편입시켜 이들의 기술을 폭넓게 전수받았다. 심지어 Possy라는 시리아인을 최고책임자로 삼아 이란의 궁정공장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41) P. O. Harper, *Royal Hunter*, pp. 14~18; J. Duchesne-Guilleman, "Roroaster Religion",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 3(2), pp. 866~908. 조로아스터교는 628B.C~551B.C에 활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Zoroaster(Zarathustura의 영어名)에 의해 창시되었다.

42) 이 동물은 개의 머리, 사자의 발톱, 새의 날개, 공작의 꼬리로 합성된 이형동물로 인간에서 생명의 원천인 종자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P. O. Harper, "The Senmurw",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20(1961~62), pp. 95~101.

馬는 종교적 흡을, 목걸이를 한 새(圖 29)는 마즈다의 보호를 받는 왕실을<sup>43)</sup> 상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산계 문양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東漸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용된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예로는 귀갑문 내부에 낙타를 끌고 가는 인물이 표현된 胡王文錦(圖 30)이 있다. 중국에서는 5세기 이후의 雲岡과 敦煌의 佛教石窟이나 古墳 副葬品の 裝飾文樣으로 유행된다. 5세기 말의 것으로 알려진 운강 제9굴의 귀갑문(圖 31)이 비교적 초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귀갑문의 내부에 불교적 의장인 天人과 도교적 요소인 鳳凰이 장식되어 있다. 식리총 금동식리에 보이듯이 운강 제6굴, 제10굴, 제14굴 등에는 귀갑과 원의 내부에 천인, 기린, 봉황이 장식되어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성격의 문양이 혼용되는 특징을 보인다(圖 32).

이러한 특징은 운강이나 돈황석굴의 천정에 불교적 요소와 더불어 伏羲, 女媧, 麒麟, 裴廉, 鳳凰, 人頭鳥神 등의 도교적 요소가 혼합된 점과 일치한다. 隋代의 것으로 敦煌 莫高窟 278굴의 천정에 묘사된 천상장면에는, 蓮花를 중심으로 불교적 요소인 飛天, 도교적 성격의 天馬, 人面鳥神, 鳳凰 등이 서로 원을 지어 날고 있다(圖 33). 그 주변에는 봉황이 내부에 장식된 사산계 연주문이 장식되었다.

北魏 高原墓의 漆棺에 표현된 귀갑문에서는 운강과 돈황에서 시작된 다양한 요소의 혼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원은 현재 寧夏回族自治區에 속한 도시이다. 과거에는 실크로드 상에 위치하여 북서부의 변방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1981년 겨울에 고원묘는 철도공사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체계적인 발굴이 시행되어 北朝美術의 새로운 자료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sup>44)</sup> 이 고분의 묘주는 李賢이라는 관리인데, 같이 부장된 사산朝이란의 페로즈王의 B식 銀貨(圖 34)로 인하여 다시 後葬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年代는 北魏 太和年間인 477~494년으로 추정된다. 칠관 뚜껑의 北朝 上流社會의 宴會圖는 이란風으로 이루어져서 이란풍이 당대 문화와 미술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이 증명되었다.<sup>45)</sup>

43) 道明三保子, 「ササンの連珠丹文錦の成立と意味」, 『シルクロード美術論集』, 深井普司博士追悼論文集, 吉川弘文館, 1987, p. 160. ; 林良一, 「イランモードの意匠」, 『シルクロード』, 時事通信社, 1988, p. 155.

44) 고원 칠관묘에 대하여서는 다음 논문 및 보고서 참조. 高原博物館, 『高原北魏墓漆棺畫』, 1988. ; 固原縣文物工作隊, 「寧夏固原北魏墓清理簡報」, 『文物』, 1984年 第6期, pp. 46~56 ; Patricia Eichenbaum & Alexander Soper, "A Northern Wei Painted Coppin", *Artibus Asiae* Vol. 1991, pp. 5~20 ; Luo Feng, "Lacquer Painting on a Northern Wei Painting", *Orientation* vol. 21/7, 1990, p. 26.

45) 羅豐, 「高原漆棺畫みに見えるペルシャの風格」, 『古代文化』 vol. 44, 1992, 8, pp. 40~52.

이 글에서 주목하는 근동원류의 연주문 구조의 龜甲文은 바로 칠관 양 측면에 묘사되었다. 두 줄의 연주문으로 구성된 귀갑문과 원문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면서 장식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운강의 예와 마찬가지로 천인과 두 마리의 봉황이 마주 보고 있다(圖 35). 관의 뚜껑에는 東王公과 西王母로 대표되는 일상과 월상 그리고 천상으로 이르는 은하수와 그물모양의 장식문양이 묘사되었다(圖 36).<sup>46)</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물모양의 장식문양 안에 표현된 長生不死를 상징하는 서수들인 인두조신, 수두조신, 기린, 다양한 자세의 새와 은하수를 飛上하는 비어의 표현과 조합이 식리총 식리와 흡사한 점이다. 이로써 식리총 금동식리에 표현된 연주문으로 된 귀갑문은 북위 시대의 고원묘 출토의 칠관에 묘사된 문양에 가장 가까운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북위 고원묘에서 출토된 鏹斗(圖 37)는 식리총에서 출토된 鏹斗(圖 38)의 원형이라 할 만큼 그 모습이 닮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운강에서 시작하여 고원을 거친 귀갑문은 북위시대의 낙양 황실묘 구역에서 발견된 石棺들에도 있어 5세기 이후 널리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sup>47)</sup> 이 석관들은 북위의 洛陽 遷都 이후 것으로, 고원의 칠관보다 후대이다. 이 중에서 석관의 옆면과 관의 뚜껑부분에 모두 시문된 예가 있다. 床의 옆 부분에 운강의 예와 같이 귀갑문 내부에 鳳凰과 麒麟이 번갈아 시문되었고(圖 39) 뚜껑 부분에는 獸頭鳥身, 人面鳥身, 麒麟 등이 각각 표현되었다(圖 40).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초기의 예는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龜甲塚(圖 41), 天王地神塚이 그 예이다. 여기에서는 한 줄의 연주문으로 귀갑문이 구획된 후 내부에 연화문이 내포되었다. 이후 백제의 武寧王陵出土의 環頭大刀, 伽耶의 池山洞出土의 環頭大刀, 신라의 慶州 夫婦塚出土의 太環耳飾, 皇南大塚의 銀蓋, 그리고 飾履塚 飾履에 표현되어, 삼국 전역에 확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V. 飾履塚 金銅飾履의 外來的 要素와 北方美術

龜甲文의 東漸過程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근동에서 시작한 문양이 신라에까지 유입되기까지는 北中國, 그중에서도 北魏(386~534)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았다. 북위는 불교를 국교

46) 동왕궁, 서왕모형의 해와 달은 西漢과 東漢代의 무덤장식 중에서는 빈번히 나타나다가 三國 및 東魏시대에 이르면 점차 출현 빈도가 낮아지며 위진시대의 동왕궁 서왕모형의 해와 달이 표현된 사례는 5세기 전 반으로 편년되는 北凉 酒泉의 丁M5號墓 정도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로 볼 때 고원묘의 칠관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全虎兌, 「高句麗 古墳壁畫의 해와 달」, 『美術資料』 제50호, 1992. 12. p. 7.

47) 皇明編, 『洛陽北魏世俗石刻繪畫集』, 人民美術出版社, 1987. p. 119.

로 삼아 불교예술을 부흥시켰으며 그 대표적 예가 雲岡, 龍門, 敦煌石窟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王朝는 北方遊牧民族출신인 鮮卑族 일파인 拓拔族이 세운 국가로 북중국을 통일하여 당시의 동서무역통로인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서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자들은 북위로 모아졌는데, 正光年間(520~524)에 이르면 洛陽의 성내에 胡人の 집이 십만육천호에 이를 정도로 서역과의 교통이 활발하게 되었다.<sup>48)</sup> 또한 비단교역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사산朝이란과 로마가 중국에게 지급한 금, 은화가 쿠차를 비롯한 西域의 일부 국가에서 실제 화폐로 통용될 만큼 교역의 양이 방대하였다.<sup>49)</sup>

西域諸國들은 중국과의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朝貢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북위에 入朝하였다. 서역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漢代 이후 西方으로 수출되는 中國産 비단을 中繼貿易하던 이란은 5세기 초부터 옥서스江 流域을 지배하던 에프탈리테(압달, Hephthalite) 등의 유목제국들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유통과정의 확보를 위해 북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sup>50)</sup> 이러한 사실은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이란, 즉 波斯의 北魏에 대한 朝貢으로 증명된다. 즉, 455년부터 521년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조공한 사실이 北魏書를 통하여 알 수 있다(表 3). 이 朝貢記事에서 獻文帝 太安元年(466年), 獻文帝 皇興二年(468년), 孝文帝 承明元年(476년)에 高句麗와 같이 조공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高句麗가 波斯, 즉 이란을 북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현재로서 고구려와 이란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이 조공기사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란과 북위,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 있는 고구려와 북위와 관계를 참고하여 볼 때,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보이는 북방미술의 한 영향은 이러한 국제관계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크다. 또한 신라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신라가 북방과 연결되는 지점은 고구려와 중국 북방일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유물들이 바로 경주 天馬塚 出土 龜甲文杯(圖 42)를 비롯하여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된 18여점의 琉璃容器들, 慶州 鷄林路 14號墓 出土 象嵌金裝短劍, 皇南大塚 出土의 銀盞이다. 유리용기의 경우,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로만 그래스게보

48) 楊銜之, 『洛陽伽藍記』卷三, 頁八(劉伯驥, 『中西文化交通小史』, 正中書局, 1953, p. 18에서 재인용).  
 49) 岡崎敬, 「ササン・ペルシア文化東傳の編年試論」, 『東西交渉の考古學』, 平凡社, 1973, pp. 226~227 ; 夏鼎, 「中國最近發現的波斯薩珊朝銀幣」, 『考古學報』, 1957, 2, p. 5.  
 50) William Watson, "Iran and China,"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 3(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546~547.

로 파악되는 신라의 유리용기와 비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시아에서는 遼寧省 北票縣 北燕의 고분인 馮素不墓(415년)와 河北省 景縣의 北魏時代의 祖氏墓 등 북중국의 영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sup>51)</sup> 象嵌, 鏤金, 金裝 기법의 慶州 鷄林路 14號墓 出土 象嵌金裝短劍(圖 43)은 아시아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소련 카자흐 공화국의 보드위에묘에서 출토된 상감보검과 키질 제69동 벽화에 보이는 상감보검에서 그 유례가 보인다. 鷄林路 短劍의 출처를 두고 이란에서 제작되었다는 의견,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되었다는 의견, 또한 이란의 제품을 동아시아에서 倂製한 것이라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sup>52)</sup>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란계 유물이 동아시아로 동점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皇南大塚 北墳出土 銀盞(圖 44)은 표면 전면에 그릇 내면부에서 밖으로 타출한 부조로서 문양들이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내용에서 볼 때 식리총 금동식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즉 그릇 중단부에 龜甲文으로 구획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 서수와 서조들과 인물들을 하나씩 배치하였다. 이러한 귀갑문의 형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동에서 출발하여 북위를 거쳐 삼국시대에 유입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양의 형식과 더불어 타출기법으로 그릇에 문양을 배치하는 것은 사산朝이란의 은기를 연상시킨다.<sup>53)</sup> 사산조 은기들은 이란에서 보다도 이란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교역하던 지역에서 더 많이 출토되었다. 19세기말 이래 러시아에서 다수 출토되어 그 존재가 비로소 학계에 알려졌는데,<sup>54)</sup> 북위시대의 중국에서도 山西省 大同市城南의 銀製人物唐草文杯를 비롯하여 다수 출토되었다.<sup>55)</sup>

慶州에서 출토된 신라의 외래적 요소가 농후한 유물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개 사산朝이란과 북위가 매개자 역할을 하던 당시의 東西交易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바로 식리총 금동식리에 표현된 귀갑문의 동점루트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51) 李仁淑, 『한국의 古代유리』, 創門, 1993, pp. 22~40.

52) 穴澤和光·馬目順一, 「慶州鷄林路의 14號墳을めぐ는 象嵌金裝短劍의 諸問題」, 『古文化談叢』 第7集, 九州古文化研究所, 1980, pp. 251~278.

53) P. O. Harper, 앞 책, pp. 24~27 ; The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Sasanian Silver*, 1967, pp.13~30.

54) 사산의 은기는 처음에는 스키타이의 그릇으로 알려졌다가 1905년 Dalton에 의하여 사산朝이란의 것으로 인지되었다. The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앞 책, p. 23.

55) 奈良國立博物館, 앞 책, pp. 209~210.

## V. 맺음말

지금까지 飾履塚 金銅飾履에 裝飾된 文樣을 중심으로 新羅에 수용된 外來美術의 流入過程을 살펴 보았다. 금동식리에 장식된 각종 瑞獸文 및 火焰文, 蓮花文은 피장자를 좋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염원과 관계있는 문양임을 알았다. 이들 문양은 대체적으로 中國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삼국시대에 이미 수용되어 도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道敎의 長生不死의 서수문과 佛敎의 성격의 火焰文과 蓮花文의 혼합은 이미 고구려 벽화에서도 확인되었던 삼국시대의 복합적인 來世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양들을 彼葬者를 來世로 운반하는 의미를 가진 신발에 표현한 예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특한 副葬文化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飾履塚 金銅飾履의 주된 문양인 두 줄의 連珠文으로 된 龜甲文은 그 유래를 근동에서 찾을 수 있는 외래 성격의 것이다. 근동 원류의 문양이 중국에 東漸된 배경으로서는, 이미 北魏, 北燕을 비롯한 北方 中國의 고분 출토의 예를 통하여 알려져 있듯이, 사산朝이란의 공예품, 즉, 織物, 金屬器, 琉璃器 등이 中繼貿易으로 유입된 사실과 키질, 운강, 돈황석굴의 불교미술의 장식 요소로 차용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로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불교의 동점경로와 관련된 후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동원류의 귀갑문이 운강이나 돈황 등 불교석굴의 장식문양으로 유행되었다는 사실은 외래 종교인 불교가 중국으로 동점되는 경로를 따라 근동원류의 문양이 동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동 원류의 문양들은 원래의 상징적인 의미가 변용된 채 불교미술에 습합되어 국제적인 양식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리층 식리의 귀갑문은 신라미술품에 보이는 외래요소가 이러한 東西美術交涉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귀갑문 내부에 장식된 다양한 계보의 문양들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추정되었던 신라의 동서미술교섭의 수용 경로가 북방 중국과 고구려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근동계 귀갑문이 장식된 慶州 天馬塚 出土의 龜甲文 琉璃杯, 皇南大塚 銀盞 등의 고분출토 공예품들의 연원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으로 사산朝이란과 북위와의 국제적인 관계가 주목된다. 西域 都護府를 장악하고 있었던 북위와 사산조 이란은 앞서 조공기사를 살펴 본 바와 같이 긴밀한 관계였다. 또한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였던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매년 북위에 조공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신라는 통설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적극적인 남하정책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동아시아

아의 전체적인 국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라에 수용된 동서미술의 교류와 관련된 외래적 요소는 통과지역으로 북위를 비롯한 북방 중국과 고구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表 1. 三國時代 金銅飾履 一覽表

	出土地(所在地, 數量)	국 가	크 기(cm)			바닥 쇠못	文 樣	
			길이	넓이	높이			技法
1	傳 高句麗出土	高句麗	.	.		60	.	.
2	JYM3109(集安)	"	30	11.6	.	23	(步搖裝飾)	.
3	JYM3105(集安, 4점)	"	.	.	.	.	.	.
4	JYM3142(集安)	"	.	.	.	.	.	.
5	① 武寧王陵 王	百濟	35	.	.	.	唐草鳳凰文	透彫
	② 武寧王陵 王妃	"	.	.	.	.	龜甲文	透彫
6	傳 公州出土	"	30				T字文(側) 菱形文(底)	透彫
7	笠店里古墳(全北 益山)	"	30	9.1	8.6	9	菱形點烈文	打出
8	新村里9號古墳乙棺	"	29.2	8.9	9.0	9	菱形文	打出
9	梁山 夫婦塚	伽耶	30.6	7.4	7.4	.	.	.
10	傳 昌寧	"	.	.	.	.	.	.
11	傳 昌寧	"	.	.	.	.	.	.
12	傳 玄風	"	.	.	.	.	.	.
13	昌寧校洞7號墳	"	.	.	.	.	.	透彫
14	達西37號古墳第2號石	"	.	.	.	.	(步搖裝飾)	.
15	達西55號墳(大邱)	"	.	.	.	.	鱗狀文(步搖裝飾)	.
16	林堂洞6A號墳(慶山)	"	.	.	.	.	.	.
17	黃桑洞古墳(慶北 漆谷)	"	.	.	.	.	.	.
18	義城塔里古墳第2號墳	"	.	.	.	.	.	.
19	飾履塚(慶北 慶州)	新羅	32.7	10.7	9.7	.	龜甲文(象嵌裝飾)	鑄出
20	① 金冠塚	"	.	.	.	.	T字文(步搖裝飾)	透彫
	② 金冠塚	"	.	.	.	.	.	.
21	天馬塚	"	.	.	.	.	T字文(步搖裝飾)	.
22	壺杆塚	"	.	.	.	.	.	.
23	銀鈴塚	"	.	.	.	.	(步搖裝飾)	.
24	皇吾里4號墳	"	.	.	.	.	.	.
25	① 皇南大塚北墳	"	27.6	10.2	.	.	T字文(步搖)	透彫
	② 皇南大塚南墳	"	.	.	.	.	T字文(步搖)	透彫
26	傳 慶州市 出土	"	31.3	9.5	8.5	9	花形文	打出
27	傳 慶州市 出土	"	.	.	.	.	T字文(步搖)	透彫

\* 奈良考古學研究所編, 『藤の木古墳』, 吉川弘文館, 1989, p. 74 ; 耿鐵華·孫仁杰, 『高句麗 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의 積石墓類型及出土文物叢表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文物保管所, 『集安洞淘古墓于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1933, pp. 67~68 참조.

表 2. 高句麗 壁畫의 人面鳥神·獸頭鳥神

古墳	人面鳥身(특징)	獸頭鳥神(특징)	기타 瑞獸
安岳1號墳	黑冠, 袍衣의 鳳尾形	鳳尾形	人頭獸身, 麒麟, 有翼有足漁
舞踊塚	○	·	麒麟, 雙鶴
天王地神塚	·	○	雙人頭蛇神(地神)
三室塚	○	○	麒麟, 天鹿, 牛頭人
江西大墓	·	○	麒麟(有羽一角)
德興里古墳	○	○	天馬, 地竺(二頭獸), 嘉鳥 博位(四耳鳥), 零陽(七角獸), 辟毒, 陽光(瑞鳥), 飛漁

表 3. 5세기 중반~6세기 중반 波斯의 北魏에 대한 朝貢記事

王(年度)	北魏書	記事
文成帝 和平二年(461年)	第一 帝紀 第五	波斯國遣使朝獻
獻文帝 天安元年(466年)	第一 帝紀 第六	高麗, 波斯, 于闐, 阿囊 諸國遣使朝獻
獻文帝 皇興二年(468年)	第一 帝紀 第六	高麗, 庫莫, 契丹, 具伏 弗郁羽陵, 日連巴黎, 叱六手, 悉萬丹, 波斯, 阿囊諸國遣使朝獻
孝文帝 承明元年(476年)	第一 帝紀 第七上	承明二年春三月 嚙嗟, 高麗, 庫莫, 波斯諸國 竝遣使朝貢
宣武帝 正始四年(507年)	第一 帝紀 第八	辛未, 嚙嗟, 渴槃陀, 渴文提不那杖等諸國, 竝遣使朝貢
孝明帝 熙平二年(517年)	第一 帝紀 第九	夏四月甲午, 高麗, 波斯, 疎勒嚙嗟諸國竝遣使朝獻
孝明帝 神龜二年(520年)	第一 帝紀 第九	丁未, 波斯, 疎勒, 嚙嗟 諸國竝遣使朝獻
孝明帝 正光二年(521年)	第一 帝紀 第九	閏月丁巳, 居密, 波斯國 竝遣使朝獻
孝明帝 正光三年(522年)	第一 帝紀 第九	秋七壬子, 波斯, 不漢, 龜茲諸國遣使朝貢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International Characters of Silla Tomb Artifacts  
- Focusing on Gold-plated Copper Shoes of Shingnich'ong-tomb -

Yi Song-nan

This paper attempts to research into the route and origin of international characters of Silla tomb arts. Though Silla had the disadvantageous geographical conditions contacting other countries, many artifacts of Silla revealed cultural exchanges have excavated from the tombs. Dagger with ornamental sheath of glit and jade(金銅象嵌短劍) from Kyerimno-tomb(鷄林路古墳), silver cup from Hwangnamdaech'ong(皇南大塚), about 20 Glasses from Hwangnamdaech'ong, Ch'öngmach'ong(天馬塚), etc., and gold-plated copper shoes(金銅飾履) of Shingnich'ong-tomb(飾履塚) are representative works influenced by the foreign arts.

In Koguryo and Paekche, paralleled with these works of Silla, few artifacts reflected in West Asia arts have excavated. So it can be drawn a deduction that Silla have had a individual route exchanged other countries. But, due to stone-layed mounds(積石木槨墳) of Silla, more works have remained than the works of Koguryo and Paekche. Therefore, it is safe to assume the route, after considering polit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of Three Kingdom Period and other countries.

Gold-plated copper shoes of Shingnich'ong-tomb is a precious material to investigate the interchange between Silla and other countries. Because elements of rich patterns are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late Han to Six Dynasties in China, in the ancient Central Asia and in even West Asia.

Gold-plated copper shoes of Shingnich'ong-tomb were excavated from a stone-layed mound at Nodong-dong, Kyöngju City, causing this mound to be later named the Shingnich'ong-tomb(gold-plated copper shoes tomb). Their edges are decorated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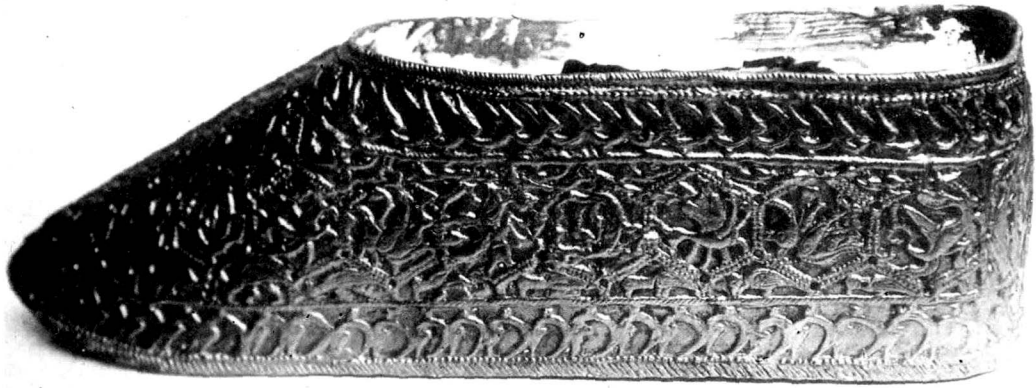
double and single rope pattern and flame pattern(火焰紋). In the middle, there is a patched turtle-shell shaped pattern filled with a lotus flower, a double bird(雙鳥), a human-faced bird(人面鳥神), a beast-faced bird(獸頭鳥神), a demon(鬼面像), a flying fish(飛魚), etc.

Double bird, a human-faced bird, a demon, a flying fish represent Taoist characters that the host of this tomb is expected to live long and healthy. Patterns of flame and lotus flower have Buddhist characters that the host of Shingnich'ong-tomb is hoped to arrive the Buddhist Elysium. So, we can see the Taoist characters and Buddhist characters are compounded in that shoe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imilar phenomena have seen on wall paintings of Kogur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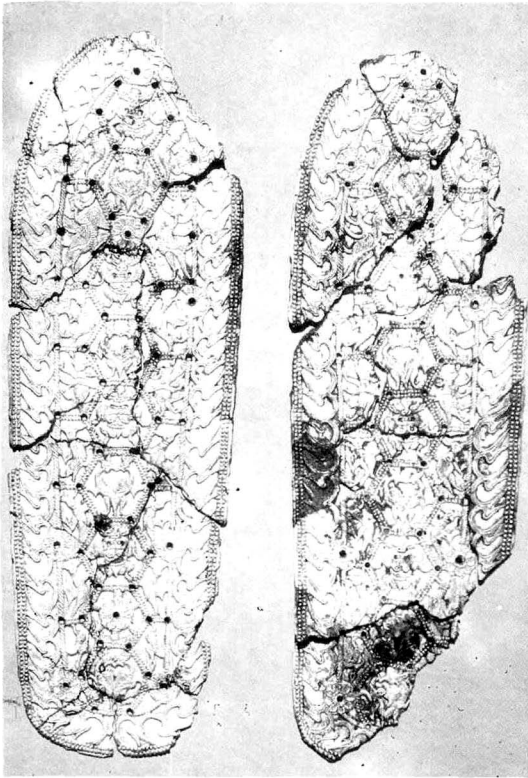
The patched turtle-shell shaped pattern filled with other pattern have originated in West Asia, especially in Sasanian Iran(226~651). This pattern was traced the source of Iranian textile and metal works. As the result of the trade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Iranian arts influenced so many Chinese artifacts and the Buddhist caves decoration of the Six Dynasties Period, especially Wei(魏) Dynasties, controller of Silk Road.

Iran has dispatched the envoy to establish the trade relationship to Wei Dynasties. And Koguryo has dispatched the envoy to Wei. On *Weishu*(魏書), it is interesting to be found that Koguryo and Iran paid the tribute three times to Wei from 5C to 6C together. And Silla had a close polit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 with Koguryo.

Therefore,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Wei and Koguryo, between Koguryo and Silla, and thinking over the patterns reflected in Koguryo character, it is natural to conclude that many international element found at Silla tomb were brought to Kyūgju(慶州) through Koguryo.



〈도 1〉 金銅飾履(북원의 예),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길이 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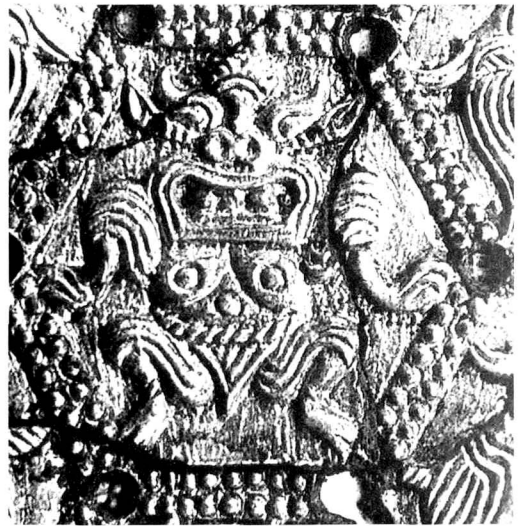
〈도 2〉 신바닥판,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도 3〉 신등판,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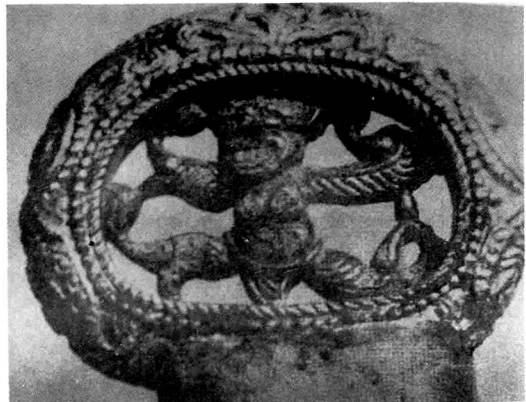
〈도 4〉 식리를 신은 무사, 通溝 12號墓, 高句麗, 북실 주실 남벽, 5세기



〈도 5〉 鬼面像,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 ~ 6세기초



〈도 6〉 力士像, 삼실총, 제2실 남벽, 高句麗, 5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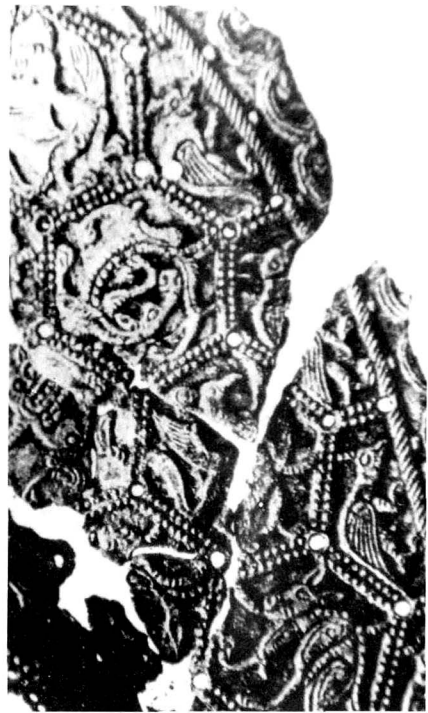
〈도 7〉 鬼神像, 環頭大刀, 高句麗, 6세기



〈도 8〉 玄武, 현실 북벽, 江西大墓, 6세기 중반  
 朱雀, 현실 남벽, 東·西중, 江西中墓, 高句麗, 6세기 중반  
 靑龍, 현실 동벽, 江西大墓, 고구려, 6세기 중반  
 白虎, 현실 서벽, 江西中墓, 高句麗, 6세기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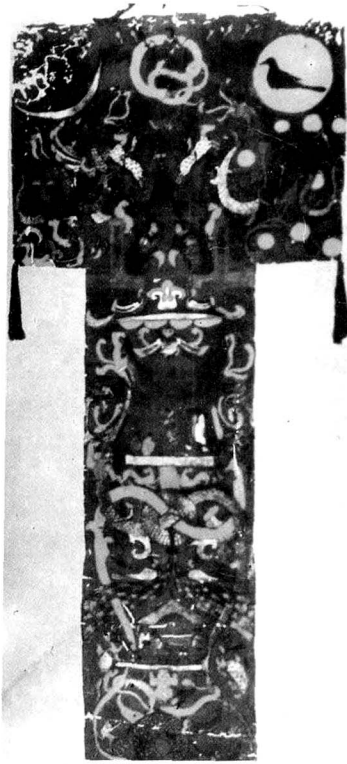
〈도 10〉 對向雙鳥(朱雀),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도 9〉 玄武,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도 11〉 龍鳳文杏葉,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도 12〉 彩繪帛畫, 長沙 馬王堆 第1號墓, 前漢, 205×9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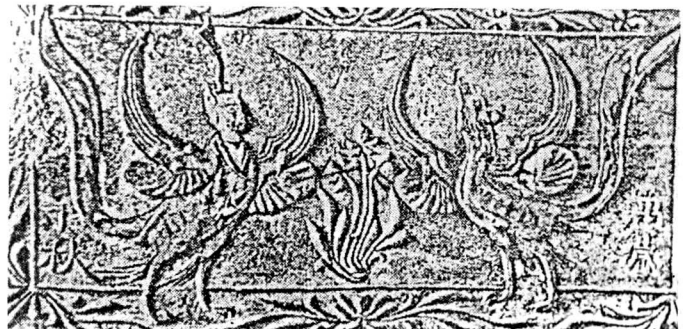
〈도 13〉 永平12年在銘神仙龍虎畫漆盤, 樂浪, 69년



〈도 13-1〉 東王公·西王母, 13의 세부



〈도 14〉 人面鳥身,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도 15〉 人面鳥神·獸頭鳥神, 畫像石, 하남성 등현, 중국 남북조



〈도 16〉 石硯, 大同市 出土, 北魏



〈도 17〉 人面鳥神·獸頭鳥神, 三室塚, 高句麗



〈도 18〉 人面鳥神·獸頭鳥神, 德興里古墳, 高句麗, 4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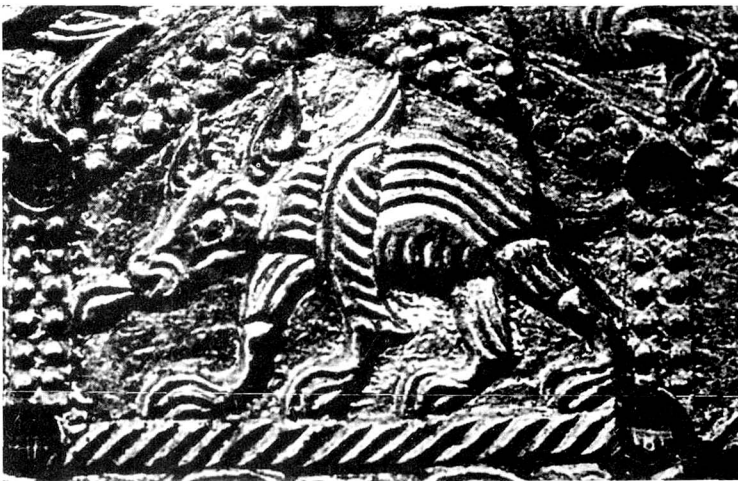
〈도 19〉 飛魚,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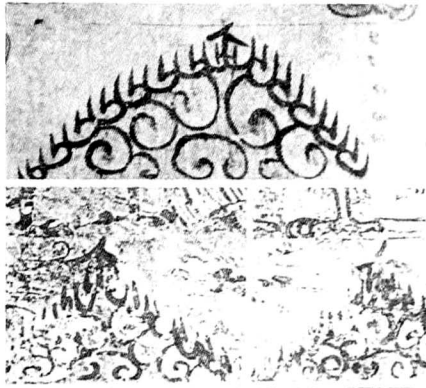
〈도 22〉 神仙界圖, 畫像石, 江蘇省出土. 推定, 중국 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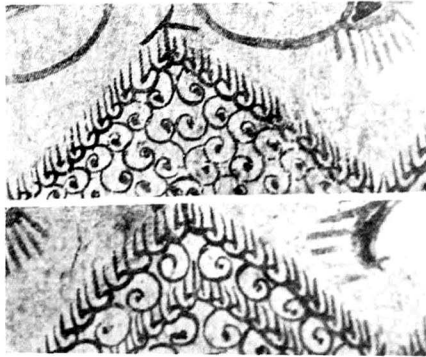
〈도 20〉 飛魚, 德興里古墳, 高句麗, 408년



〈도 21〉 麒麟,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도 24〉 三角火焰文, 漆棺, 高原 李賢墓, 北魏, 477~4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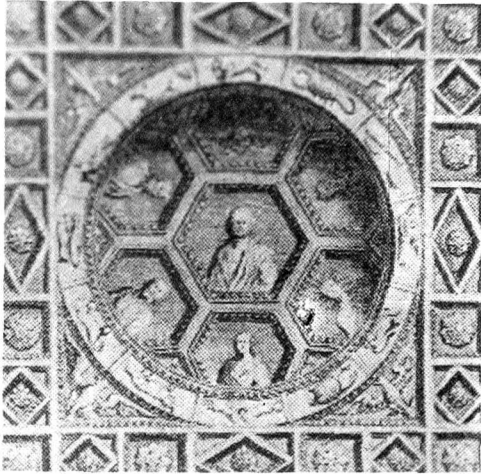
〈도 23〉 三角火焰文, 위로부터 舞踊塚(6세기전반), 龍神塚(5세기중반), 각저塚(6세기전반), 高句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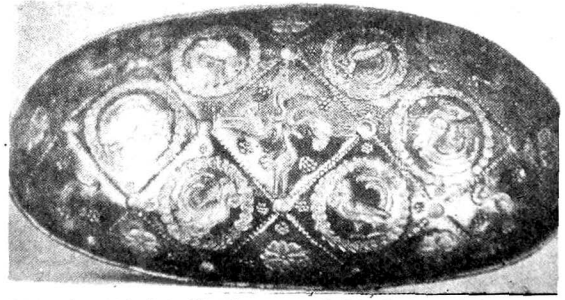
〈도 25〉 蓮花化生, 銅製盃,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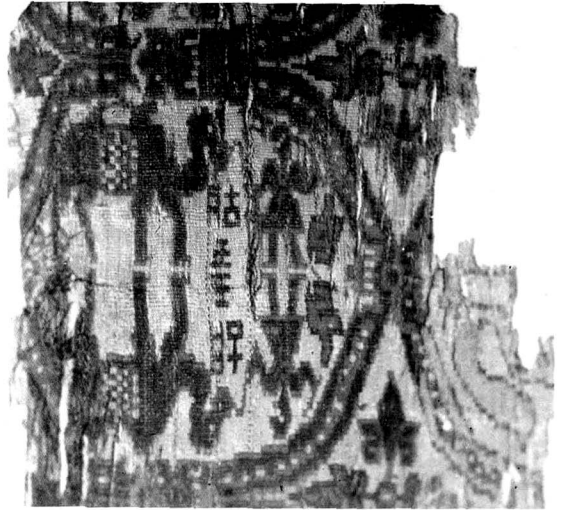
〈도 27〉 金剛寶珠, 雲岡石窟제7窟, 北魏 〈도 26〉 金剛寶珠, 현실 천정받침아래 江西大墓, 高句麗, 6세기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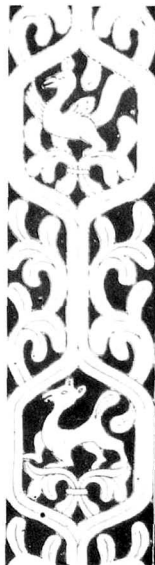
〈도 28〉 龜甲文, 曆天井, 팔미라, 2~3세기



〈도 29〉 목걸이를 한 새, 銀盤. 사산朝이란, 6세기



〈도 30〉 龜甲文, 號王文錦, 아스타나出土, 6세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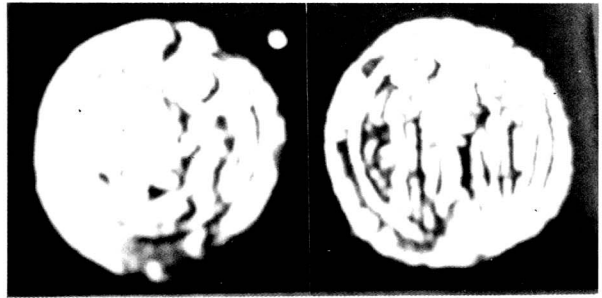


〈도 31〉 裝飾文樣, 第9窟, 雲岡, 北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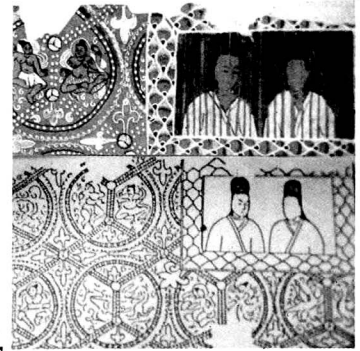
〈도 32〉 裝飾文樣, 右로부터 제 14·6·10·6窟, 雲岡, 北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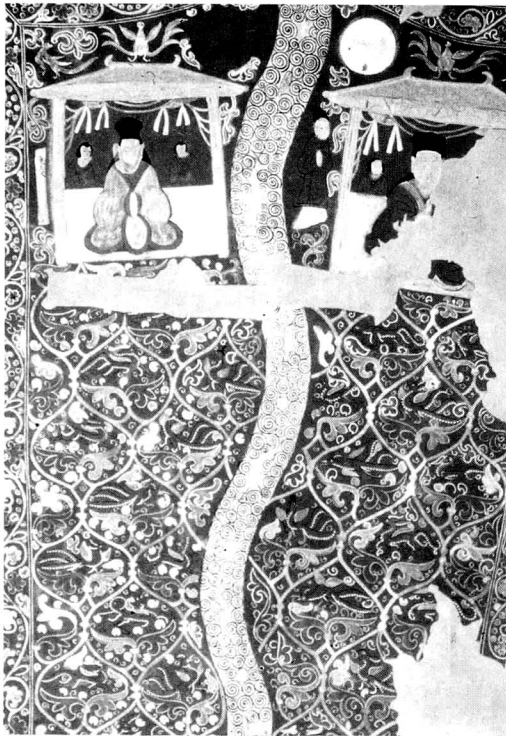
〈도 33〉天井壁畫, 敦煌 제407굴, 隋



〈도 34〉페르즈왕B式 銀貨, 高原 李賢墓 出土, 사산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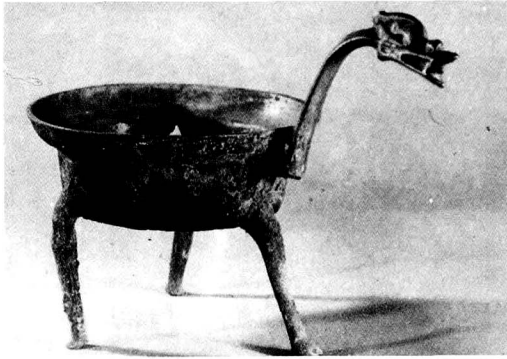


〈도 35〉裝飾文樣, 漆棺 側面,  
高原 李賢墓 出土, 北魏, 477~4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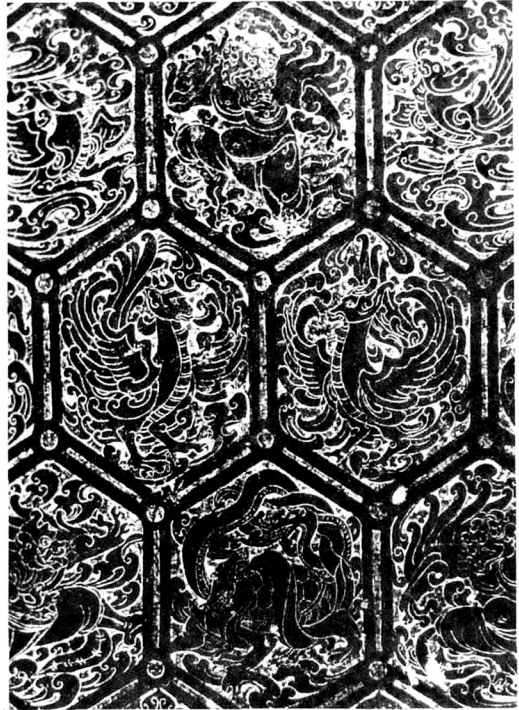


〈도 36〉東王公·西王母, 漆棺 뚜껑, 高原 李賢墓 出土, 北魏, 477~4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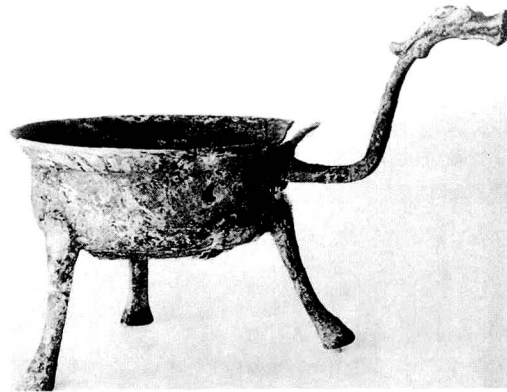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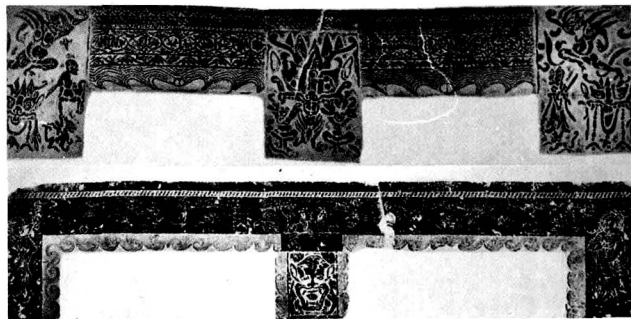
〈도 37〉 鏹斗, 高原 李賢墓 出土, 北魏, 477~494년



〈도 40〉 裝飾文樣, 뚜껑부분, 석관, 洛陽, 北魏



〈도 38〉 鏹斗, 金銅飾履, 飾履塚, 新羅, 5세기말~6세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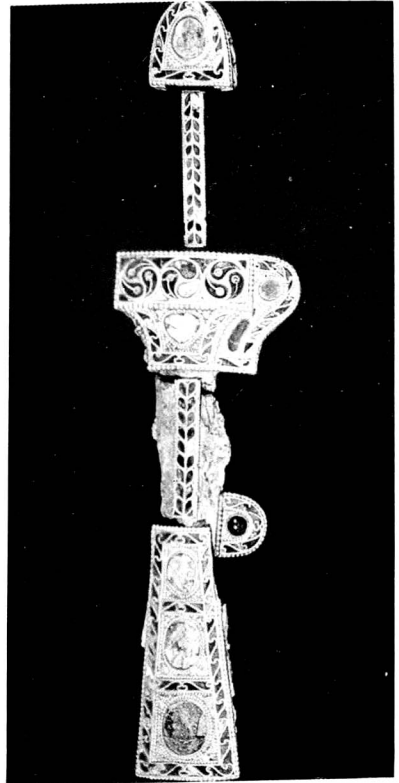
〈도 39〉 裝飾文樣, 床부분, 석관, 洛陽, 北魏



〈도 41〉 龜甲塚, 高句麗, 5세기



〈도 42〉 龜甲文琉璃杯, 天馬塚, 新羅, 5~6세기



〈도 43〉 象嵌金裝短劍, 慶州 鷄林路  
14號墓 出土, 5~6세기



〈도 44〉 銀盞, 皇南大塚 北墳 出土, 新羅, 5~6세기